

4대강 현장활동보고서

강의친구365



강의친구365

4대강 현장 활동 보고서

녹색연합 등록번호 01-11-07-04
펴낸이 박경조
펴낸곳 녹색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34번지
02-747-8500 www.greenkorea.org
펴낸날 2011년 8월 16일

강의친구 365 후원자님께



2011년 녹색연합은 4대강 반대운동을 함께 해 온 종교인, 전문가,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현장을 꼼꼼히 감시해왔다는 칭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의친구 365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생명의 핏줄인 우리의 강들이 포크레인에 파헤쳐져 멍들어 회색의 시멘트로 갇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4대강 현장팀은 올해 상반기에 더욱 바빴습니다. 비가 내리면 바로 출동하기 위해서 긴급대응팀이 별도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호우기에 벌어졌던 4대강 공사장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발표한 녹색연합의 4대강 장마 피해 현장 결과 보고서는 정부가 주장했던 4대강 사업을 통한 홍수예방효과의 근거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호우기 때 4대강 공사현장의 변화상과 수해피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저희가 조사한 사진과 보고서가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정말 4대강의 진실은 결국 현장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현장을 열심히 발로 뛰고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낍니다.

이제 정부는 두 달 후에 4대강사업의 완공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히려 정

부가 "완공"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설 구간의 재퇴적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계속 낭비될 것이고, 보 건설로 인해 왜곡된 강의 흐름이 주변지역에 피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농민들의 침수피해와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 등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선거를 통해 강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심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원래의 강의 모습을 되살릴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여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그 동안 축적된 4대강모니터링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길 바랍니다. 남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갇힌 곳곳에 우리의 녹색의 염원이 다시금 심겨지길 바라며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의친구 시즌2>캠페인에 특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돈 드림



4대강현장활동보고서

강의친구365



CONTENTS

- 4대강현장 활동일지 4
- 4대강현장 활동보고 6
- 4대강 공사현장 비교사진 8
- 강의친구들 10
- 결산보고 12
- 강의친구365, 시즌2 13

4대강 현장 활동일지

생태분야 모니터링



- 2010. 04 도리섬의 단양썩부쟁이와 표범장지뱀 발견
물고기 떼죽음과 꾸구리
- 2010. 06 총충동글레 서식지 대응
- 2010. 03 ~ 05 남한강 6공구 생태조사



4대강 지류 모니터링

- 2011. 02 4대강 지류 모니터링

홍수피해 모니터링



- 2010. 07 ~ 09 호우기 모니터링
- 2011. 05 수해관련 공동조사
- 2011. 06 4대강 호우기 대응 TFT 활동

공사현장 모니터링



- 2010. 05 불법 적치장공사
- 2010. 10 ~ 2011. 영주댐 대응

시민참여 프로그램

2010. 08 사귀자 참여 프로그램
~ 10 (4대강 귀하다 지키자)



2010. 06 홍대 예술가들과의 4대강 답사
및 전시회

언론 및 홍보 활동

2010. 05 남한강 6공구 생태조사 보고서

2010. 10 4대강의 실상을 알리는 영문 보고서

2011. 03 강원래, 4대강 독립다큐 제작 및 상영

2011. 07 4대강사업 장마 피해 현장 결과보고서

2011. 07 4대강 홍수 피해 현장 조사 자료집



4대강 현장 활동보고

생태분야 모니터링

- 도리섬의 단양썩부쟁이와 표범장지뱀 발견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되어있던 멸종위기종인 단양썩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을 남한강 6공구의 도리섬에서 찾아내 보도하였다. 서식지 보존과 실태파악 등 요구를 하였으나 공사는 강행되었다. 도리섬 내에서 보호대책을 요구하며 시위하였고 인근지역 삼합리 단양썩부쟁이의 경우 전 개체가 바위늪구비 지역으로 이식되었다. 강력한 요구에 해당지역 시행사인 수자원공사는 절개지를 제외한 도리섬 내부는 남겨두기로 결정했으며 단양썩부쟁이 자생지가 상당부분 보존되었다.

- 물고기 떼죽음과 꾸구리

여주 내양리 지역에서 물고기 수천마리(또는 그 이상)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임시 물막이에 막혀 고립된 물고기들이 있었다. 가장 큰 개체인 누치는 사람들 눈에 드러났지만 그보다 작은 개체들은 잘 보이지 않아 '그들의 죽음'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작은 개체 중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꾸구리도 상당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임시물막이 내에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사항 보도 후 공사장에서 갇힌 물고기들을 건져내 풀어주었다.

- 남한강 6공구 생태조사

여주시내에서 원주시 부른면까지 이어지는 남한강 6공구 지역 생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무려 6종이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에는 작년엔 실시했던 남한강 6공구의 생태조사를 토대로, 1년간의 변화상을 조사했고 작년 조사지점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강 주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급격히 변화되었음을 확인했다.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1년간의 강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 언론(KBS 환경스페셜)과 동행 취재하였다.

- 신록사 앞 수달 서식지

여강선원이 있던 곳 앞까지 공사가 들어왔으며, 몸으로라도 막자는 취지로 임시물막이를 만드는 곳 앞쪽에서 뗏목을 띄워 공사 진행에 항의하였다. 해당 지점에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달의 흔적을 발견했고, 수달의 대체서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들어오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늦은 밤 현장관계자와 경찰과 대치하던 도중 연행되기도 했다.

지류 및 공사현장 모니터링

- 4대강 지류 모니터링

본류의 준설은 지류에 영향을 미쳤고 본류의 강바닥을 파내면 지류와 만나는 지점에 하상 차이가 생겨, 지류의 물흐름이 빨라졌다. 이로 인해 강바닥과 강기슭의 침식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역행침식(두부침식)이라 부르는데, 역행침식 현상은 준설을 마무리 하는 올해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초부터 지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강, 금강의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을 모니터링하여 그 변화상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였다. 올해 3월의 봄비에도 낙동강의 병성천, 구봉천 등지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여 올 들어 처음으로 언론(경향신문, KBS)을 통해 역행침식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 호우기 모니터링

대부분의 현장에서 장마에 대비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장마철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많은 임시물막이가 쓸려가고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합천보 함안보 가물막이 침수, 남한강 연양천의 신진교 붕괴, 남한강 금당천 하상유지공 유실, 금강권 익산시 신막마을 침수 등에 대한 대응활동을 펼쳤다.

- 수해관련 공동조사 및 4대강 호우기 대응 TFT 활동

2011년 5월에 본격적인 호우기 이전의 4대강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주요 지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4-5월의 봄비에도 지천에서 역행침식과 재퇴적 현상, 보 주변 제방 등의 시설물 유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장마 후 7월에도 4대강의 주요 지점을 공동조사단이 돌아보고, 장맛비로 인한 4대강의 수해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5월 조사를 통해서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허구를 밝혀냈다. 특히 지류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부터 실시했던 단체는 녹색연합이 유일하였고, 녹색연합이 축적한 사진자료 등이 지류의 변화를 밝혀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불법 적치장 공사 및 영주댐 관련 대응

“4대강 사업으로 수해피해가 줄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제 현장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허구임을 밝혔고 “호우기 대응 TFT”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해피해 대응활동을 펼쳤다. 비가 올 때와 비가 그치고 난 후, 한강과 낙동강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신속하게 밝혔으며,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 신록사 앞 수달 서식지

남한강 4대강 공사지역에는 16개 이상의 적치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는 소음방지펜스, 모래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해당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공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일대에서 일어난 ‘모래폭풍’ 등의 사건을 예방했고, 2010년 말 조사했던 영주댐 수몰 예정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그 외 영주댐 문제에 대한 토론회 등 참석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영주댐 건설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시 민참여 및 언론홍보

- 사·귀·자 프로젝트 (4대강 귀하다 지키자) 및 리버사이드 모델

시민 및 회원들에게 거리캠페인과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파헤쳐진 우리 강의 실상을 함께 체험하였다. 흥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화가, 사진가, 만화가, 영화감독 등)이 모여서 ‘대방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4대강 답사를 진행했으며 녹색연합에서 찍은 현장사진들과 이들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언론 및 홍보

약 30건의 보도자료와 성명서 배포하여 녹색연합의 활동내용과 입장을 알렸고 보도뉴스, 시사프로그램 등과 동행 취재하여 4대강 현장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남한강 6공구 생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남한강 6공구의 생태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밝혀냈다. UN 생물다양성총회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국제사회에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알리는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알리는 영문 보고서가 제작되었다. 총 80건의 블로그를 통해 4대강 대응 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했다. 총 20여 건의 동영상 제작하였고 독립다큐 감독들이 참여한 4대강 다큐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생태 분야의 다류를 제작하여, 각종 영화제 등을 통해 4대강의 문제점을 알렸다.

4대강 사업이 저지되는 그날까지 녹색연합의 4대강현장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 현장 비교사진



강천댐

모래와 자갈, 갈대가 너울거리던 이곳은 더이상 물이 자연스레 흐르지 않는다. 생명을 품고 흘러가던 강물은 여기서 숨이 끊길 것이다.



바위늪구비

초록이 화사하던 바위늪구비. 어느 겨울날 포크레인 들어오더니 산산조각이 났다. 어느 면도기 광고 남자의 턱처럼 '말끔' 해졌다.



금모래은모래

해가 날 때도, 구름이 드리웠을 때도 빛났던 모래 들. 그 빛깔이 금인지 은인지 헷갈려 '금모래 은모래' 라 지었나보다. 어느새 파헤쳐지고 고향 모를 커다란 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다.



금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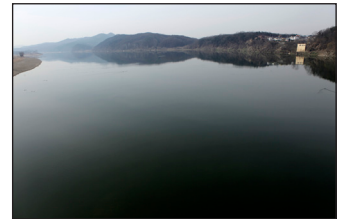
졸졸졸 구불구불 금사천은 그렇게 강을 만났다. 그들의 접선 장소에는 작은 습지가 있어 이웃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금은 얼굴을 파 낸 사람처럼 그곳엔 아무 표정이 없다.





바위높구비

지난 여름 길을 걸었다. 자연스러운 들판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다. 어느날 자연을 두고 '개발이 덜 된' 것으로 취급하더니 아예 없애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나.



전북리 습지

초록은 덩수룩하게 덮여있었다. 산야는 그곳과 이어져 강을 만났다. 초록이 사라지고 청결한 자전거 도로와 S자 곡선의 연못이 들어왔다.



이포대교

강 한 켠의 작은 물길. 아이들이 바지를 걷고 물놀이 하던 장소다.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강 바닥은 깊게 파였다. 다시 찾은 아이들은 '물놀이 금지' 표지판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 할까보다.



이포댐

물새들의 뺨뺨거림, 갈대들의 부스럭거림, 아이들의 재잘거림, 물들의 졸졸거림 대신에 보, 생태광장, 어도, 문화광장이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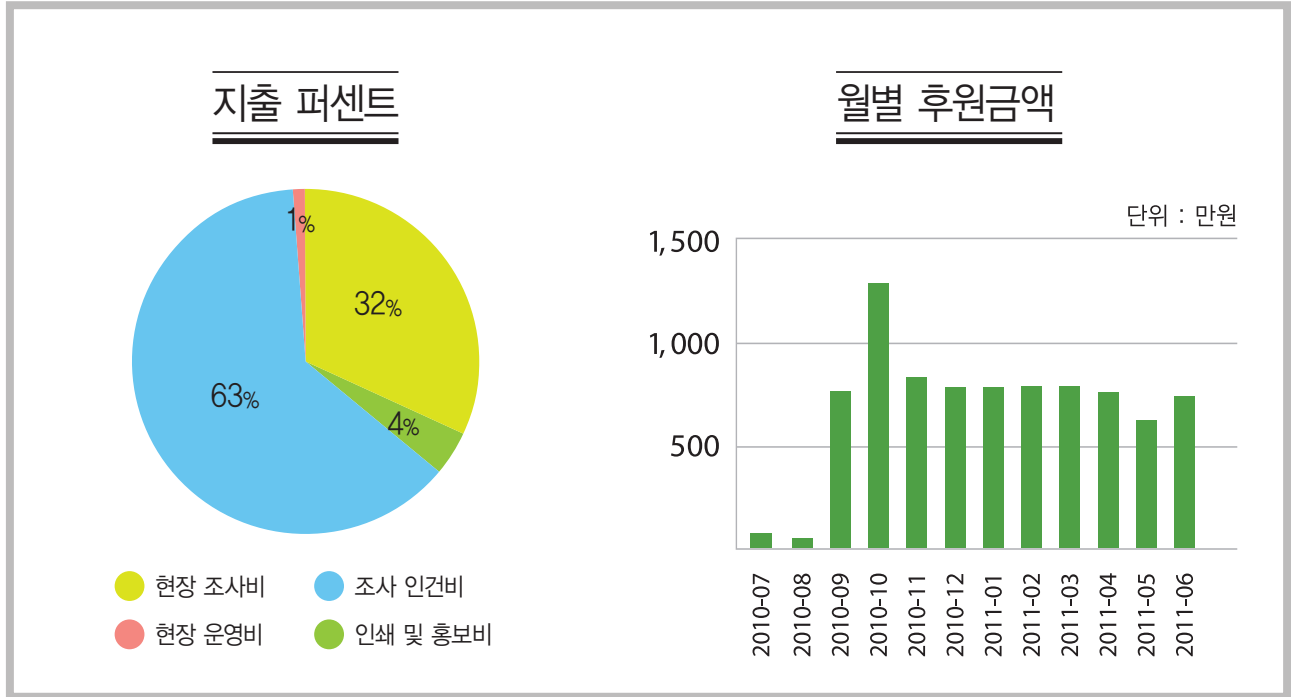
강의 친구들

귀한 격려의 말씀들이 녹색연합이 4대강 대응활동을 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의친구이신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받아, 자연을 파괴하고 국토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년 365일 함께 해주신 671명의 후원자님께 두 손 모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박영미	안녕하세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모니터링 내용 보내주시면 블로그 등에 게시할게요 힘내세요!!
이은이	이 땅은 우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후원하고 응원하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전소현	답장이 늦었네요ㅠ 현장 소식 잘 보았습니다. 불철주야 4대강사업 감시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직접 참여 못해서 아쉽습니다. 날이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세요!!
권보라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국가가 국민 발등에 도끼 찌는 이 상황에 환경단체분들의 노고로 덜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ㅠ.ㅠ 감사합니다!!
조수경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메일을 보면서 현장팀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힘내세요!
이정은	어휴 작년에 직접 봤을 때에도 가슴이 미어졌는데요, 더욱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봐야겠지요.
신은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지요 그럼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사팀 모두 힘내시고 더운날 기력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변소영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 엄청난 자연파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니...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대신 앞장서서 애쓰시는 현장에 계신 모든분들 힘내세요!
류재향	4대강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니다. 닥쳐올 화가 두렵지도 않은지, 저들의 행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이 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대변해 목소리로 뛰어주시니 고맙고도 미안합니다.
김수정	네,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 감동입니다. 건강조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김주현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상식이 안통하는 시대를 핑계로 자포자기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김동일	힘내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우	수고 많으십니다. 직접 발로 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정다영	공동조사가 큰 의미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이럴수록 더 뚝뚝 뭉쳐야죠! 사대강팀, 힘내라~으 으 !
박명숙	국가의 미래에 관한 일을 하는 자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자들이니 참말로 깜깜하네요^^; 힘내시고 건강도 챙기면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정	네,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 감동입니다. 건강조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희열	활동의 결과가 이렇게 직접 보이니 좋네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차희연	시설도 취약할텐데 현장에서 늘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모니터요원들이 없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텐데 덕분에 공동조사까지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4대강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훼손되는 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구요 당신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세연	그렇군요! 이번 공동조사가 사대강죽이기를 중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김선형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강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아자!
최소라	강의친구 365 감사합니다. 4대강 파괴 미리 막지 못해 억울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팀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김성희	이 정권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들이 조만간 실체를 드러내겠군요. 현장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활동 덕분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구요
남궁효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도 안되는 사대강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역행하는 문명의 탐욕은 항상 멸망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노상경	그 사람들 분명히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알량한 이익보다 강이 더 소중한데, 정말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음정민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참여 못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 애써주시고 저도 뒤에서 힘껏 응원합니다.
이경미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이상의 재앙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아	진실올려줘야 생겨 뉴스도 안봤는데 힘을 주시네요 다시 정신 차려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실로 이어가길 기원 기원 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근	강의친구 여러 실무자님들의 활약에 경의와 존경의 응원 박수 보냅니다. 아, 그리고 조사 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주문을 외겠습니다. 사대강친구 아자자??
임성준	그렇치 않아도 뉴스보고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싶었지요. 지금까지도 많은 고생하셨지만 좀 더 힘내셔서 불쌍한 우리 강들을 꼭 되살리는데 노력해주세요. 맘만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힘든 과정인 만큼 모두들 건강 꼭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난영	녹색연합의 활동가들이 있어서 우리의 산과 강이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후대에 덜 부끄럽게 같이가는 강의친구들도 핫팅을 보내며 현장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안례	정말 수고많이 하셨네요^^ 강의친구 365^^ 4대강 막무가내개발 "회초리" 노릇을 제대로 하게되었군요^^ 암튼 몸조심하시고요 이메일 소식도 고맙구요! 꾸벅^^ 4대강 저지바람이 불어와~ 막장토건사업의 모래성을 날려 보내주기를~
황재삼	고생 많으십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해도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박진희	4대강 사업은 사교강 사업 사람도 잡고 자연도 잡는 사업입니다. 사대강사업을 꼭 막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아자아자!
최문숙	발빠르게 꾸준히 활동하는 활동가님 덕분에 포착된 증거사진이 4대강을 토크 건축으로부터 보호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발로 뛰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 뛰겠습니다. 활동가 님 파이팅^^~
정명희	다시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전상희	강의 친구들이란 말이 무척이나 다정하고 몽글합니다.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시대의 어둠이 언제 걷힐지 알 수 없다 해도 빛과 소금이 되는 이들이 있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지요.. 힘내시고 건강 지켜가며 4대강을 지키는 활동에 힘차게 이끌어주세요~~ 아자아자!
신은희	수고 많으십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핫팅
박우영	아... 정말 정마때는 어쩔려고 저러나오. 현장의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후원만 하고 서울에 있는게 부끄럽습니다. 공동조사 발표 꼭 이루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상황이 심각하네요 현장서 직접 보신 분들은 더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진애란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반은경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님 힘내세요~마음으로나마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은	어휴 작년에 직접 봤을 때에도 가슴이 미어졌는데, 더욱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봐야겠지요.
박현식	회비 올렸는데 식사는 꼭 챙기세요. 밥값 드렸어요. 나중에 아프다는이 그럼 안됩니다^^
심상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중단하고 복원하도록 해야합니다.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연명	몸이 함께하지는 못하나 늘 마음으로 고마워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정미영	수고 많으시죠? 가끔씩 여전히 공사는 진행중~이란 사실이 일상에 묻히고 한답니다. 파이팅!!
김현철	4대강 지킴이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수고 부탁드립니다.
김수정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 감동입니다. 건강조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조명진	머칠전 이포대교를 지나며 반듯하게 깎인 황토색 흙더미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돈만 내고 제 할일을 다한 것인양 지내서 죄송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박경택	후원자 박경택입니다. 김성만 님, 고생많으십니다. 님이 계셔서 진실이 묻히지 않고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한준택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파이팅
임종현	4대강팀! 고생많으십니다. 자손대대로 문제를 떠안게될 4대강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조애경	고생하셨어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해진(박미라)	직접적인 힘은 실어주지 못하지만 맘속으로 항상 4대강 개발 저지에 에너지를 보냅니다...
송지영	여주에 사는 송지영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맘에 강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에요 활동중 시장할 때 연락주심 한끼 대접할게요
김재구	파이팅. 몸은 도시에 있으나 내 꿈은 그대들이 있는 젓줄기 강에...건강 하세요
백수영	정말 고생하며 감사하시는데 도통 귀를 안여니 답답합니다. 그래도 힘내서 막아주세요
김효선	기가막힐 노릇이군요. 이 정부는 왜 자연을 가만두지 않는지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김주현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상식이 안통하는 시대를 핑계로 자포자기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진영	수고 많으십니다! 강의 친구 365 핫팅!
정승관	불보듯 뻘한 일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힘입니다.
정순균	고생 많으심다. 안타까운 건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아니라 파헤쳐진 우리강이죠.
김동미	고생많으세요. 멀리서나마 보이지 않는 작은 힘을 보내드려요. 바른 세상 위해 땀흘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희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망할 공사를 꼭 막아냅시다(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최정일/한태숙	사대강 삽질을 멈추기 위해 애쓰시는 모니터링 팀! 꼭 힘내셔서 우리 뚝까지 싸워주세요!
임해숙	눈물이 나네요. 저렇게 아름답던 강을 도대체 무슨 권리로 파괴한단 말입니까. 활동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뛰어가고 싶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기대렵니다
이정화	제가 하지 못하는 있는 일을 대신 힘써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김태곤	저도 오늘 신문 보는데 상황이 무척 심각하더군요 이 미친사업을 그만두게 더욱 힘내주세요~
강재호/김광옥	너무 고생많으시군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님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생태계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항상 두눈과 귀를 부릅뜨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강 현장활동 결산보고



결산보고

항목	내역	금액	퍼센트
수입	강의친구(671명) 6월까지의 현황	82,383,000	
	(수입 합계)	82,383,000	
지출	현장 조사비	26,559,490	32 %
	현장 운영비	1,189,097	1 %
	조사 인건비	52,162,500	63 %
	인쇄 및 홍보비	3,432,990	4 %
	(지출 합계)	83,344,077	100 %

4대강 현장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강의친구365 시즌 2

이제 정부는 두 달 후에 4대강사업의 완공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완공”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설 구간의 재퇴적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계속 낭비될 것이고, 보 건설로 인해 왜곡된 강의 흐름이 주변지역에 피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농민들의 침수피해와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 등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선거를 통해 강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심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원래의 강의 모습을 되살릴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여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그 동안 축적된 4대강모니터링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길 바랍니다. 남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깃들인 곳곳에 우리의 녹색의 염원이 다시금 심겨지길 바라며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의친구365 시즌2>캠페인에 특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



- 홍수기 관련 모니터링
- 완공시 재퇴적 문제 제기
- 완공된 4대강의 모습이 가진 문제점 알리기
- 농지 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
- 시민참여형 자전거 길 모니터링
- 수질관련 모니터링
- 주요지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한 4대강 문제 의제화

후원 방법

계좌이체 : 하나 187-910002-89304 사단법인 녹색연합
전화신청 : 070-7438-8536
문자신청 : 010-7101-1423 (이름과 연락처, 후원금액을 기재하여 발송)
이메일신청 : fund@greenkorea.org

 나무와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스무살이 되는 녹색연합은 1991년부터 시작한 현장 중심의 조사활동과 대중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녹색연합은 환경파괴 현장부터 백두대간, DMZ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습지대와 해양, 멸종위기의 야생동물과 식물이 있는 생태 현장, 그리고 녹색의 생활실천을 위한 시민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생명 존중, 생태 순환형 사회의 건설, 비폭력 평화의 실현, 녹색자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